

종교 개혁에 대한 책갈피

송인규 소장

(한국교회탐구센터)

필자는 역사학자나 교회사가가 아니고 더군다나 더 종교 개혁 관련 전문가도 아니다. 그런 인물로부터 종교 개혁에 관한 책 소개를 받는 것이 유익한 일일까? 이런 자격지심의 응달에만 머무르지 않으려는 것은 그 끝자락에 살짝 상식의 별이 쏘이기 때문이다. 상식은 내게 이렇게 말해 준다 — 사상과 지식에 관한 한 때로는 비전문가의 일가견이 주효하는 수도 있노라고!

다수가 종교 개혁의 역사와 관련하여 문외한으로 자처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책이 도움이 될까? 우선 한국인 쓴 책이 번역서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물론 완성도의 면에서 안심을 시켜야 하겠지만). 내용에 있어, 우선 종교 개혁의 역사를 잘 소개하는 교회사가의 책자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종교 개혁을 좀더 일반 역사가의 시각에서 서술한 도서 역시 신선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다.

마지막으로 종교 개혁을 다루되 다른 주제/사안과 연계성 가운데 조망한 저술이 있다면, 그런 책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네 권은 바로 이런 속사정의 결과물이다.

교회사적 관점에서의 종교 개혁

먼저 종교 개혁을 교회 역사 전공자의 시각에서 보는 책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한국인에 의한 저술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의 책을 번역한 것이다.



오덕교, 「종교개혁사」, 개정 증보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5)

저자는 청교도 신학 [17세기 미국으로 이주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전공자로서, 근 30년 가까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다. 이 책 또한 목회자 훈련을 위한 교과서의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다. 저자 자신이 털어놓듯 그 누구도 객관적 성격의 역사기술을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아예 자신은 보수적 장로교의 입장에서 종교 개혁을 논하겠다고 밝히고 출발한다.

이 책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태여

분해를 한다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첫 부분은 제1장으로서 종교개혁의 해석인데, 종교개혁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지막”부터 거론하자 — 은 종교 개혁의 의의에 대한 것인데, 상당히 아쉽게도 제15장의 말미에 매우 간략히만 기술되어 있다.

책의 대부분은 둘째 부분 (제2장부터 제15장)이 차지하고 있다. 우선은 2장에서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논한 후, 3장~6장을 통해 루터의 활동과 루터파 교회의 확산을 설명한다. 그 다음 다섯 장은 개혁파의 역사적 발전 모습을 기술하는 데 할애되어 있는데 츠빙글리(7장), 칼빈(9장), 유럽 각국(11장), 스코틀랜드(12장), 청교도(14장)가 그것이다. 나머지 세 장은 각각 급진적 개혁운동(8장), 반동종교개혁(10장), 영국의 종교개혁(13장)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15장은 30년 전쟁 전후의 사정을 묘사한다.

비록 목회자와 신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책이지만, 종교 개혁의 실상 파악에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후스토 L. 곤잘레스 저, 엄성욱 역,
「종교개혁사」, 개정증보판
(서울: 도서출판 은성, 2012)

후스토 곤잘레스(Justo L. González, 1935~)는

큐바 출신의 교회사가인데, 미국 감리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라틴 신학을 주도해 왔다. 그는 1970-1975년 사이에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3부작)을 저술해 알려졌고, 그 후 1984년에는 좀더 대중적 스타일의 2부작 The Story of Christianity를 펴내기도 했다. 이 책들이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곤잘레스는 한국의 신학도들에게도 낯선 인물이 아니다.

사실 책의 구성과 내용은 상기한 한국인의 저술과 상당히 비슷하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저자의 책에 대해서도 도입부 — 제1장 개혁의 부름 — 와 종결부 — 제14장 격동의 시대 — 를 찾을 수 있다. 핵심부라 할 수 있는 나머지 12장은, 네 개의 장(2-4, 9장)이 루터와 루터파에, 5장이 스위스 종교개혁에, 6장이 급진적 종교개혁에, 7장이 존 칼빈에, 8장이 영국의 종교개혁에, 10장이 저지대 국가들[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종교개혁에, 11장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주의에, 12장이 가톨릭 개혁에, 그리고 13장이 네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의 프로테스탄트주의에 할애되어 있다.

형식상으로 보자면 한국인의 저술은 개혁파와 장로교의 발전에 좀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후스토의 책은 여러 신학 전통을 골고루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필자 개인이 후스토의 책을 읽으며 도움이 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루터의 신학에 대한 소개가 간명하지만 매우 선명하면서도 깊이가 있게 느껴졌다. 둘째, 가톨릭의 개혁을 묘사하는 내용의 경우 인물이 벌인 활동이나 업적보다도 그들의 내적 상태와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생동감과 몰입감을 가져다 주었다.

아마 이것은 후스토가 보이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은사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하나의 잘 짜여진 이야기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에 비해 처음에 소개한 저술은 책을 읽을수록 내용의 진행이 사건 단위나 주제 단위로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대조적 면모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는다. 유연한 흐름의 각도에서 보자면 후스토의 저술이 도드라지지만 가끔씩 이게 지금 누구의 어떤 사태를 묘사하고 있는지 놓칠 때가 있다. 반대로 한국인 저술의 경우에는 길 잃고 방황하는 일은 초래하지 않지만 후스토만큼 강물 흐르듯 자연스레 이어지는 맛을 기대할 수는 없다.

역사적 시각에서의 종교 개혁

이번에 선보이는 책은 일반 역사가로서의 기량과 성찰에 의한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교회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앞의 두 권과 차이가 난다.



패트릭 콜린슨 지음, 이종인 옮김, 「종교개혁」 (서울: 을유문화사, 2005)

이 책의 저자인 패트릭 콜린슨(Patrick Collinson, 1929-2011)은 영국 종교 개혁사의 대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청교도 활동을 연구하면서 역사학자의 경력을 시작했다.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 대학에서 가

르치다가 최종적으로는 은퇴 전까지 [1988-1996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현대사 왕립 교수직에 임명을 받았다.

「종교개혁」은 콜린슨이 학자로서의 경륜이 무르익은 시기에 쓴 작품인지라 간명하면서도 심원하고 여기저기에 저자 특유의 유머와 재치가 번뜩인다. 책자의 내용 구성을 전기한 두 권과 비교해 볼 때,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현저히 드러난다. 필자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12장으로 구성된 콜린슨의 책자는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제1부/ 제1장 종교개혁이라는 용어 [도입부]
- 제2부/ 제2장~제3장 종교개혁의 배경
- 제3부/ 제4장~제8장 루터, 칼뱅, 반종교개혁, 영국의 종교 개혁
- 제4부/ 제9장~제11장 정치·대중·예술
- 제5부/ 제12장 종교개혁은 하나의 분수령이었는가? [결론부]

책의 구성에 있어 특이한 점은 제9장~제11장의 포함이다. 종교개혁기에 발생한 사건이나 현상을 정치[통치자들에 대한 태도와 사건들], 대중[일반 백성들이 주도한 항거·폭동·전쟁의 사태], 예술[당시의 음악, 미술, 연주 등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정리한 내용이다.

콜린슨의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도 교회사적 고찰 서적과 차별화가 된다. 첫째, 동일한 사건을 취급하면서도 해석과 설명이 교회사가의 것보다 좀더 비평적 입장에서 서 있다는 느낌을 준다. 어떤 사안을 검토하든지 다룰 때에도 집요할 정도로 질문을 쏟아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의 가능성을 열거한 뒤에 자신의 논지로 나아간다.

둘째, 잘 알려지지 않거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좀더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다. 새로이 원전을 소개하든지, 원래 알던 사건이지만 배경 설명을 통해 “그랬구나!”하게 만들든지, 상식화된 어구들의 원 의미를 밝히든지 하는 일은 다반사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념을 뒤엎기도 하고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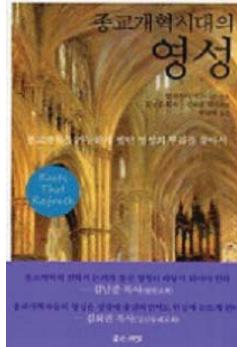
셋째, 특정적 신앙의 관점이나 전제가 교회사가의 경우보다 상당히 많이 절제되고 드물게 제시된다. 이것이 원 저자에게 역효과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독자들은 그렇게 자기 정련의 과정을 거친 저자의 글에 더 신빙성을 부여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넷째, 클린슨은 종교 개혁에 연관된 사건들을 소개함에 있어 시간의 흐름을 쌍방으로 활용한다. 대체로 오늘의 독자들을 과거의 현장으로 데려가지만, 가끔씩 오늘의 전망대 앞으로 과거의 사건을 펼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를 깜작 놀라게도 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저자의 글에 9.11. 사태나 최근의 경험사가 경구처럼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독자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 책은 따로 읽기보다도 전기한 교회사적 관점의 책자 다음에 (아니면 병행해서) 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영성의 각도에서 본 종교 개혁

마지막 책자는 종교 개혁을 영성이라는 각도에서 조망한 산뜻한 착상의 작품이다.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박규태 옮김,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서울: 도서출판 좋은씨앗, 2005)

알리스터 맥그래스(Allister E. McGrath, 1953~)는 역사신학자이자 <과학과 종교>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며 무신론자들과의 조우를 시도한 경력의 면에서는 변증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관심사는 훨씬 더 넓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했고, 특히 실 틈없는 책자 발간을 통해 크리스천 저술가로서도 관록을 쌓았다.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역시 그의 관심사가 다양함을 증거하는 구체적 예인데, 이 주제는 과거에 이미 각각 다룬 “종교 개혁의 역사”와 “기독교 영성”의 접합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본은 *Roots that Refresh: A Celebration of Reformation Spirituality* (1991년 간)인데, 번역서의 제목은 원서에 나타난 부제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여겨진다.

맥그래스는 제1장에서 종교 개혁의 영성 연구가 기독교의 정체성과 순전성을 되찾게 해 준다고 역설한다. 이것은 과거의 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활용할 때 확신과 자각 가운데 미래를 대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제2장 종교개혁 영성의 기본 원리들은 책 전체의 내용을 통괄하는 열개가 된다. 네 가지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i) 종교 개혁의 영성은 성경을 그 중심으로 삼았다. (ii) 종교 개혁의 영성은 인간의 정체성, 순전성, 완성이 하나

님을 아는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단언한다. (iii) 종교 개혁의 영성은 성직 개념과 소명 의식이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된 것임을 강조한다. (iv) 종교 개혁의 영성은 일상 생활에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그런 삶을 지향한다 라는 것이 그 골자이다. 제3장은 종교 개혁자들의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 교회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뿌리 찾기 운동이었음을 밝힌다.

제4장부터 제9장까지는 종교 개혁의 운동에 있어 사상적 근간이 되거나 특징적 양상으로 손꼽힐 수 있는 사안들을 한 가지씩 해설하고 있다. 제4장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께서 이성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십자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강변한다. 즉 세상의 비천하고 연약한 상황 속에 감춰져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그래스는 제5장 신앙, 의심, 그리고 염려에서 기독교 영성 — 특히 믿음 — 이 어떻게 의심과 불확실성을 다룰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맥그래스는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살아야 할 사명과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6장 도시 속의 신앙에서 밝히고 있다. 이 점은 종교 개혁자의 활동 무대가 주로 도시였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7장 일상 세계 속의 신앙에서는 소위 일상 생활의 영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노동에 관한 개혁자들의 긍정적 태도가 개신교의 노동 윤리에 변혁적 결과를 낳았다고 증언한다.

제8장 넘치는 은혜는 종교 개혁자들이 어떻게 은혜의 개념을 중세적 오용으로부터 건져내었는지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움”임을 깨달았다. 이와 관련해 “의로운 죄

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끝으로 은혜를 상기시키는 수단으로서 성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한다. 맥그래스는 제9장 훈련과 자유에서 종교 개혁의 주요 모토인 “이신칭의”와 성화 사이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해명하고 있다. 성화와 관련해 도입한 “훈련”의 개념은 매우 적실하고 유익하게 여겨진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종교 개혁의 영성이 현대 교회에 끼치는 유익과 방도를 거론한다.

맥그래스의 책은 종교 개혁의 역사를 단지 다양한 사건들이나 일련의 에피소드의 모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우리에게 전수된 종교 개혁의 영성적 자원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귀중하고 적실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제4장, 제6장, 제8장, 제9장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종교 개혁의 정신을 심각히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첫째 권(혹은 둘째 권)과 넷째 권은 필독해야 할 것이다.



글 | 송인규

한국기독교학생회(IVF)의 총무로 역임하였으며,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으로 있다